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and program name.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0일(음 7월 7일 戊辰)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Table of daily fortune tellings for various zodiac signs (午, 未, 申, 酉, 戌, 亥).

“악역 전문 이미지 벗고 양면성 갖춘 배우 될래요”



영화 '오피스'서 '선한' 형사역에 도전한 박성웅

내달 3일 개봉하는 영화 '오피스'에서 배우 박성웅(42·사진)은 형사를 연기했다.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판정각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형사는 아니다. 오히려 '선한' 형사에 가깝다. 최중훈 형사는 김병국 과장의 일가족 살해 사건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사건에 끌려 다니는 쪽이다. 자연스럽기 '왜 박성웅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아직 많은 관객에게 박성웅은 누아르 영화 '신세계'(2013년)에서 "딱 죽기 좋은 남씨네"라고 율조리는 위압적인 '형님' 이종구이기 때문이다. 박성웅은 "왜 나를 악역 전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 수식어가 마뜩찮은지 묻자 "그 얘기가 3년째 듣다 보니"라고 했다. "시사회장 가서 사진 한 번 찍어도 사람들이 '신세계'를 패러디해요. '시사회 보기 딱 좋은 남씨네' 하고 나한테도 이종구는 하나의 숙제예요. 뛰어넘어야 하는. 역할이 너무 비슷하면 할 수 있는 연기가 없어요." 실제로 '신세계' 이후 그가 시도한 역할은 이종구와 일관성 쌍둥이는 아니었다. '역린'에서는 정조의 금위대장 흥국영이었고 '무뢰한'에서는 여자를 위해 살인하고 여자를 위해 도망 다니는 남자였다. '황제를 위하여'의 사제업자도 역시 건달이었지만, 사투리 연기에 도전했다는 점에 그는 의의를 둔다. "촬영에 들어가 '검사외전'에서의 역할도 선과 악이 모호한 캐릭터예요. 그동안 '일방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양면적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시대극 '해어화'도 촬영 들어가고요." 새로운 도전을 강조하는 그에게 남성이 넘치는 외모와 분위기 때문에 관객도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는 "연극할 때는 남장 역할까지 해봤다"고 강조했다. "끔 씹으면서 '오빠~' 하는 연기도 해봤니까요. 다양한 역할을 갈망한다고 써주세요.(웃음) 뭐든 내놓고 하는 것 말고 평소 모습에서 딱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요." 정글보다 살벌한 회사에서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심리전을 그린 스릴러 '오피스'에서 외부인인 최 형사는 일종의 관찰자로서 기능을 한다. 터뜨리는 연기보다 어려운 게 절제하는 연기라지만 일견 답답할 수도 있는 역할이다. 박성웅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라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작품 선택 이유를 밝혔다. "잘하고 싶었어요. 의성이 형(부장 역을 맡은 배우 김의성)이 '내가 무표정으로 이걸 하면 형사로서 무게중심이 잡을 수 있을 거 같고 좋겠다'고 권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됐고요. 배우들이 다 좋았어요. 고아성(인턴 미례 역) 씨와도 호흡 맞춰보고 싶었고..." 촬영 중에는 연기에 새로운 것들을 하기보다 시나리오 그대로 해석하려고 했다고 한다. "뭘 더 하려고 하지 않고, 뭘 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다른 배우들이 판에서 놓고 있을 때 저는 관망하지만, 관객은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북 충주 출신인 그는 식구도 많고 그중에서도 남자들이 유독 북적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겸사겸사 않는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 배우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대가 심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 첫 3년 동안은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영화 단역 말고 처음 제대로 된 역할로 무대에 오르게 됐을 때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죠. 그랬던 아버지가 나중에 '태왕사신기' 할 때 지인들한테 전화해 '우리 아들이 거기 나온다고! 아니, 첫째 말고 둘째!' 하시더라고요."(웃음) '태왕사신기'에서 박성웅은 동료 배우 신은정(41)을 아내로 얻었다. 집에서 서로 작품을 고를 때 도움을 주거나 연기 관련 조언을 하는지 묻자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번 했다가 대판 싸운 적 있어요.(웃음) 부부간에도 자존심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배우들은 자존심이 더욱 강하고요. 저는 남편으로서 칭찬받고 싶어서 '어땠어?' 물었는데 아내네는 동료로서 '음...'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서로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신은정의 연기나 배우로서의 욕심도 높았다. 동료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박성웅의 모습이 남편으로서 애정을 표시하는 것 이상으로 '로맨틱'해 보였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다. 아버지가 된 이후 연기에 영향이 있는지 묻자 그는 작품을 고를 때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점점 든다고 했다. "그동안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드라마 '신분을 숨겨라'에서 드디어 정의로운 형사 역할을 맡아서 '아들, 아빠야!' 하고 첫회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너무 때리더라고요. '음, 아들 안 되겠다' 했어요.(웃음) 아들을 생각하면 확실한 책임감이 생기더라고요. 더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성애를 다루는 따뜻한 영화도, 코미디 영화도 해보고 싶어요."

‘씨스타’ 효린과 지코, 팔로알토가 뭉친다

협업 프로젝트 눈길 “마치 한팀같이”

씨스타의 효린과 래퍼 지코, 팔로알토가 합작 컬래버레이션(협업)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씨스타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효린과 지코(사진 오른쪽), 팔로알토가 함께 한 음원이 오는 26일 공개된다며 티저 이미지를 19일 공개했다. 세 가수의 조합은 여러모로 눈길을 끈다. 지코와 팔로알토는 엠넷 서바이벌 합작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4'에서 '지랄' 팀이란 애칭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듀서팀이다. 힙합계에서 재능있는 프로듀서로 떠오른 '젊은 피' 지코와 정통파 힙합으로 팬들과 평단의 지지를 받는 하이라이트레코드의 수장 팔로알토의 만남은 '쇼미더머니 4'에서도 이슈가 됐다. 또 효린은 씨스타에서 걸출한 보컬이지만, '쇼미더머니 4'에 이어 9월 11일 첫 방송 되는 엠넷 여성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업프리티 랩스타 2'에서 래퍼로 도전한다. 지난 13일 강원도 평창에서 녹화가 열린 MBC TV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선 정준하, 이상민의 노래에 지음사도 했다. 이들은 티저 이미지에서 마치 한 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스타쉽은 "세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국내 최정상급의 아티스트들이 만큼 각자의 개성과 아우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G·양현석, 스포츠 기자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YG엔터테인먼트와 소속 가수가 한 스포츠신문 K기자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YG와 YG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K기자가 칼럼 등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YG와 양 대표는 K기자가 지난달 1일 게재한 칼럼과 일부 기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 등 허위 사실을 담아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또 빅뱅의 멤버 승리도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K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YG의 한 직원이 서울북부지법에 K기자가 기사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기자의 법률대리인은 통화에서 "청소녀에 미치지는 않아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건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고 다른 스타에 비해 공정하지 못하다는 측면에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입각해 기사를 썼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